



#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 신현 축일 전 주일

성 테오페토스 순교자, 성 싱글리뜨끼 수녀

제4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신현 축일 전 찬양송 / 150. B 120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전 시기송 / 150. B 121

· 사도경: II 디모테오 4,5-8 / 150. 봉독서 650

· 복음경: 마르코 1,1-8 / 150. B 12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2020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새해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어 탄생하신 위대한 성탄 축일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경축하면서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오 1:23)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 하느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죄로 인해 끊겼던 하느님과 우리의 친교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과 함께 계셨습니다.”(요한 1:14)

또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주시기 위해, ‘적대자 사탄이 세운 장벽’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에페소 2:1~5 참조)을 허물고 우리 중의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창세기 1:26)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어떻게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고, 그래서 오직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느님과 친교, 형제자매와의 친교에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길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세로대는 우리와 하느님을 연결하고, 가로대는 우리와 형제자매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새로운 해가 우리 이웃과 인격적 친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자녀를 참되게 친교를 맺어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여깁시다. 이어서 성당 교우들, 가까운 친인척과 주변 이웃, 친구와 직장 동료들, 특별히 하느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갈라디아 6:10)과 더 나은 친교를 위한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친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국인, 사회적 약자 등,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말고 우리의 친교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다른 사람과 친교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하느님과 이어주고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마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새해도 자비와 사랑과 자선으로 더욱 풍요롭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영적 삶의 근본 목적인 자비와 사랑과 자선의 하느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과 더 뜨거운 친교 맺는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성직자들, 우리의 협조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원합니다. 더불어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큰 사랑과 존경과 함께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 정교인으로서 새해에 하는 결심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래의 것들을 매일 매일 실행한다면 우리 하느님의 도구로서 사랑의 빛을 우리 주위의 세상에 밝게 비추게 될 것이다.

1. 매일 기도하기. 기도의 규칙을 세우고 날마다 실천하라. 기도는 하느님과 연결되게 해주며,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 단 한 시간도 그분 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라.
2. 날마다 그대의 정신을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필립비 4:8)로 채우도록 애쓰시오. 달리 말하면 매일 성경과 다른 영적인 글을 읽는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가지시오. 읽은 것을 명상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쓰시오.
3.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라. 먼저는 하느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록 힘들었던 날일지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4. 날마다 어떤 화나 분노도 하느님께 맡기도록 하라. 하루가 쓸쓸한 기분 가운데 끝나지 않게 하라. 곧, 매일 용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먼저 당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그리고는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누구일지라도 용서하도록 하시오.
5. 시기, 질투, 탐욕 따위가 마음 속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시오.”
6.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당신도 어떻게 다른 이들을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시오. 다른 이를 섬기고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잊지 마시오.
7. 웃음을 잃지 말고, 만나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도록 하시오.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에페소 4:29)
8.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시오. 오늘 누군가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음을, 그리고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낮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고, 우리의 궁극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관점이 더 의미있게 변할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 소 식

### 대교구

#### ■ 신현 축일 예배 일정

2020년 1월 6일(월)

오전 : 신현 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신현 축일 대성수식

☞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 신자총회 공고

2020년 1월 12일 주일 서울, 부산, 전주, 춘천, 울산 성당에서는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9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20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교구의회 공고

2020년 1월 22일 제16회 대교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 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 ■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1월 31일~2월 2일(초, 중, 고등부)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지난 12월 22일 (주일) 제36회기 신자총회에서 주님의 축복으로 새해 2020년 한 해의 사목 활동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총회에서 인천 봉사단의 회장 되시는 신희철 교우께서 성 바울로 성당 청·장년회원들의 매월 '성동원' 봉사에 대한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해 왔습니다. 청·장년회원들의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함에 진심으로 격렬한 찬사를 보냅니다.



### 주간예식

· 1월 7일(화) 세례자 요한의 연관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